

# 법화경과 석존

이번 장에서는 석존 불법의 진수인 법화경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석존에서 니치렌 대성인에 이르기까지의, 법화경이 흥통되어 온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 (1) 법화경의 특색

### 1) 석존의 ‘출세의 본회’

법화경은 석존의 ‘출세의 본회’라고 할수 있는 경전입니다. 출세의 본회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 목적 즉 일대사의 인연은 일체중생을 성불시키는 것이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즉 방편품에서는 [제불 세존은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건을 열게 하여 청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였다. (통해-모든 부처 세존은 중생에게 부처의 지혜를 열게 하여 청정한 경애를 깨닫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고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개결 167쪽)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방편품에서 석존은 법화경을 설함으로써 자신이 과거부터 지니고 있던 서원을 성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서원이란 [일체중생을 나와 마찬가지로 하여, 다름이 없게 할지이다(통해-일체중생을 자신과 똑같은 부처로 하여 다르지 않게 하고 싶다)](개결 176쪽)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화경은 ‘일체중생의 성불’이라는 부처의 본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해진 경전입니다.

### 2) 모든 경전 중의 왕

석존이 설한 수많은 가르침은 지금까지 많은 경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화경은 ‘경왕’ ‘제경(여러 경들)의 왕’으로서 여러 경전 중에서도 최고봉입니다. 그 까닭은 다른 제경이 교법의 한쪽 측면만 설하는 것에 비해 법화경은 그러한 제경들이 ‘무엇을 위해’ 설해져 있느냐는 부처의 진의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부처의 진의란 ‘만일 성불’을 가리키며, 법화경은 만일 성불이 부처의 진의라고 설해 가는 가운데 보편적인 불계의 생명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법화경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계에 대한 믿음을 깊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화경과 제경의 이러한 관계는 대강(기본적인 부분만을 떼낸 줄거리)과 강목(대략적인 줄거리와 자세한 조목)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제경이 그물코라면 법화경은 모든 그물코를 움직이는 하나의 큰 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건물과 토대의 관계러더 비유할 수 있는데, 제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법화경에 다다를 수 있게 만드는 가르침으로 법화경이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토대라고 할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중생을 법화경으로써 불계에 이르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3) 멸후를 위한 경전

법화경은 석존 멸후의 중생을 위해 설해진 경전입니다. 만일 성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석존일대의 중생 구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멸후의 중생을 위해 성불의 법을 나타내고 그것을 전하여 넓혀야 합니다. 법화경은 실로 멸후의 구제를 목표로 하여 그를 위한 법과 사명 그리고 그 실천을 설한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가 깨달은 법인 동시에 만인을 구제하는 법인 ‘일승’을 설하는 것도 멸후를 위해서 입니다. 석존의 본지와 영원한 불계의 생명을 밝히고 그 구제의 힘을 설하는 것도 멸후의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또 허공회라는 법화경의 중심적인 의식은, 바로 멸후의 흥통을 지용의 보살에게 의탁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견보답품 제11에서는 육난구이, 권지품 제13에서는 삼류의 강적 등을 설하여 멸후에 이 경전을 넓히는 일의 존귀함과 어려움을 나타내 광선유포의 실천을 권하고 있습니다. (‘허공회’ 본문 93쪽, ‘지용의 보살’ 본문 112쪽, ‘육난구이’ 본문 93쪽, ‘삼류의 강적’ 본문 357쪽을 참조)

## (2) 법화경의 요지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해 설해진 경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 3가지로 법화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성불의 법리

먼저 법화경에는 ‘일체중생의 성불’을 가능케 하는 법리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에 ‘불계의 생명’이 갖추어져 있다는 법리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만민에게 ‘불성(부처의 성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근 전 인용한 방편품의 글이 ‘중생에게 불지견을 열게 한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생명에 본래 부처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화경 이회의 경전에서는 이승(성문, 연락)의 사람은 절대 성불할 수 없다고 하거나 또는 여성과 악인도 부처로 될 수 없다고 설하는 등, 일체중생의 성불을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만인 성불이라는 법리는 중국 천태 대사의 ‘십계호구’ 또는 ‘일념삼천’의 법리고서 전개되어, 중국과 일본에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은 만인이 불계를 용현할 수 있는 길을 실제로 연 것입니다.

### 2) 중생 구제라는 대원에 살아가는 진실한 부처

둘째로 법화경에는 ‘부처’의 진실한 모습이 설해져 있습니다.

즉 수량품에는, 지금까지 석존이 금세에서 처음으로 성불했다(시성정각)고 말해 온 것은 임시의 모습이며 진실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석존이 성불한 이래 사바 세계 (참아야 할 세계를 뜻하며 현실 세계를 말함)에서 중생을 계속하여 구제하는 장원한 수명을 가진 부처(구원실성의 부처)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체중생을 구제(성불)’하는 서원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처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량품 끝부분에는 일체중생의 성불을 바라는 구원실성의 석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 이 염을 하기를 무엇으로써 중생을 하여금 무상도에 들어가 속히 불신을 성취함을 득하게 하리오(구원실성의 석존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면 중생을 무상의 도에 들어가게 하여 빨리 부처의 몸을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이가)] (개결 510쪽)

다른 경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한 경지의 부처와 성인을 설합니다. 또 인간과 격리된 초월적인 부처를 설하거나 현실 세계와 다른 이상적인 부처의 세계 즉 정토를 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처와 정토는 진실한 부처, 정토가 아닙니다. 법화경의 부처는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불계를 열게 하여 만인을 구제하는 부처입니다. 법화경은 그 삶의 자세야말로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약동하는 부처의 경지이며 거기에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행복 경애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3) 부처의 대원을 이어받은 보살

셋째, 법화경에는 석존 입멸 후, 법화경을 믿는 ‘보살’의 근본 사명이 밝혀져 있습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라는 뜻인데 자신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일체중생의 성불’을 실현해 가는 사명을 가진 것이 법화경의 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짊어진 보살이 ‘지용의 보살’이라고 설해져 있습니다.